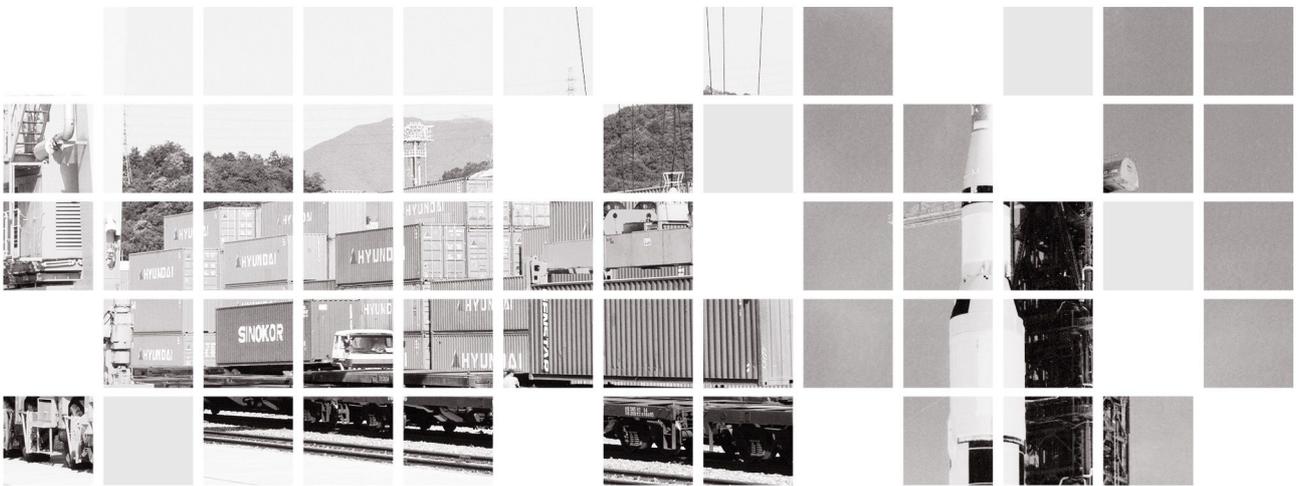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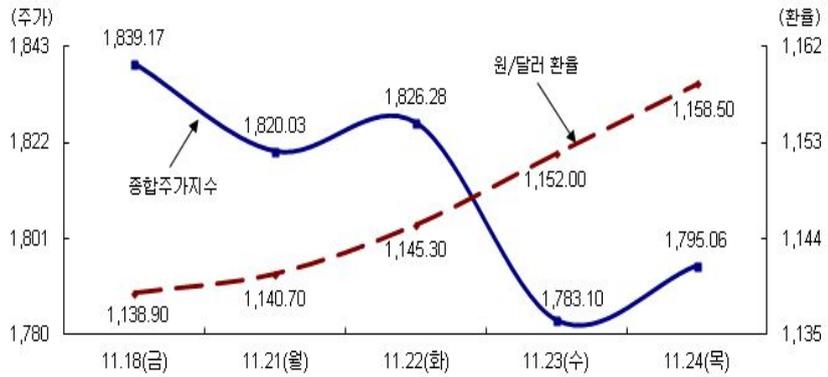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브라질
- 인프라 투자와 구매력 확대에 주목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8~11.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브라질	
- 인프라 투자와 민간 소비 확대에 주목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 성 : 김 필 수 선 임 연 구 원 (2072-6238, p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브라질 - 인프라 투자와 구매력 확대에 주목

■ 개요

브라질은 빠른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증대를 시현하며 기회의 대륙으로 부상 중이다. 경제 전망 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7년 브라질의 세계 4대 경제 대국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주 대륙 최대의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수익구조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브라질 경제의 특징 및 향후의 성장 동력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 브라질 경제 분석

① 2000년대 이후 원자재의 1차 제조 및 내구소비재가 브라질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2000년대 브라질 경제를 이끈 자본재(특히 원자재의 1차 제조) 및 내구소비재 생산이 있다.

② 지역 간 경제적 편차는 내륙 물류 수요 확대 및 지역 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한 동남부 지역과 원자재 생산이 중심인 북서부 지역 간의 생산품 차이는 내륙 물류량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③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가 브라질 경제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의 투자 정책 기조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드컵,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물류를 비롯한 투자 계획을 진행 중이다.

④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형성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경제의 성장 및 기업의 증가, 이에 따른 일자리의 확대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은 2009년 이후의 불황기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감소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빠른 증가는 2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소비시장의 형성을 기대하게 한다.

■ 국내 기업 진출 현황

생산 기지 건설 중심에서 원자재, 인프라, 서비스 등으로 진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른 증가를 보이면서 그동안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의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물 외에 농산물까지 포함한 자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통신,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는 물론, 온라인 게임 등 소비자 상품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 브라질 내수 시장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 시사점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협의가 진행된 만큼 현지 투자 및 진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교민과 기업 간의 보다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브라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물류를 비롯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소비재 시장과 같이 현지의 민간 구매력 확대를 활용한 신규 수익 창출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브라질의 제도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지 특유의 리스크 파악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브라질 >

개요	
브라질에 주목하는 이유	- 브라질은 2027년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전망(EIU) -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로 적극적인 정부 투자 진행
브라질로부터의 기회	- 브라질은 생산 기지 건설과 수익 다각화의 기회를 제공 · 풍부한 자원, 미주 시장 접근성, 내수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인 중

브라질 경제 분석	
경제의 특징	- (특징) 넓은 국토에서 지역별 주도 산업의 큰 차이가 발생 · 북서부의 원자재, 동남부의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이 브라질 경제를 견인 - (영향) 국내외 물류 수요의 확대와 저개발 지역 투자의 증대 · 지역 간 생산품 이동의 기반 및 낙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필요
성장의 양대 축	- 인프라 투자: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지속할 전망 ·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 · 특히 물류 부문은 경제 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진행 - 구매력 확대: 2억 인구의 소득 수준 향상은 거대소비시장을 형성 · 동남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및 취업자 수의 증가와 동시에 임금이 상승 · 소득 계층 구조가 과거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빠르게 변화

국내 기업 진출 현황	
투자의 양적 증가와 분야의 다양화	- (투자 규모 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중심의 투자 증가 · 한국은 2011년 상반기 기준 10대 브라질 투자국 - (투자 분야 확대) 원자재, 인프라부터 서비스업 등으로까지 확대 · 철강, 농산물, 인프라는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사업까지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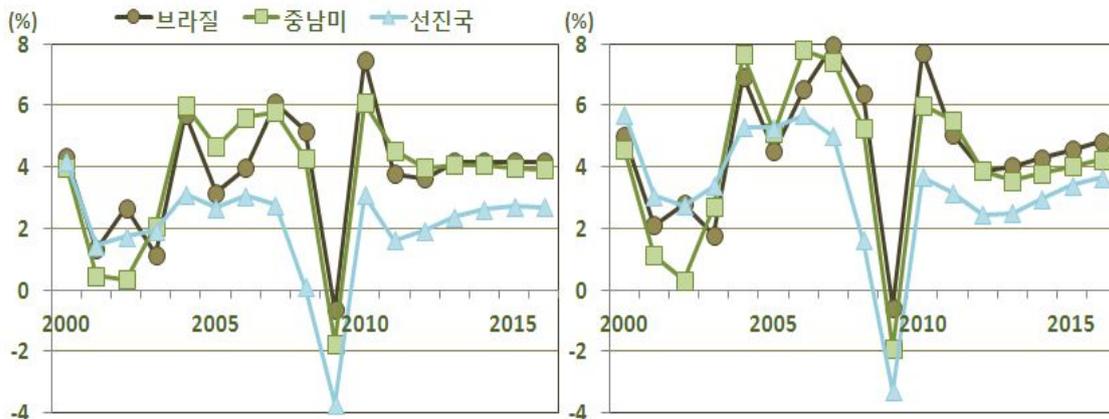
시사점	
시사점	첫째, 정부 간 협력에 따른 투자 · 진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노력 둘째, 현지 교민과 진출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셋째, 물류 및 인프라 등 정부 주도 투자 사업의 참여 방안 모색 넷째, 금융, 소비재 시장 등 민간 구매력 확대를 활용한 신사업 개척 다섯째, 문화 · 제도적 차이를 비롯한 브라질 고유의 경영 환경 파악

1. 개요

○ (배경) 선진국 경제의 둔화와 신(新)시장 개척 필요성

- (기존 시장의 한계) 선진국의 경제 위기와 중국 진출의 난관
 - 선진국 시장의 불투명성: 미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유로존의 재정 위기 대두 등에 따라 선진국 시장의 회복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
 - 중국 시장의 한계: 신흥 시장 및 생산 기지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나 장기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어 신규 진입에는 높은 장벽이 구축되는 중
- (장단기 성장 속도차) 신흥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선진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특히 브라질은 정부 투자에 의한 단기 경기 부양이 전망
 -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브라질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2027년 GDP 규모가 세계 4위에 이를 전망
 - 정부 투자: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낙후된 국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의 경기 침체 극복에 도움이 예상

< 브라질, 중남미, 선진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비교 >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자료: IMF.

- 주: 1)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 1인당 GDP 증가율은 구매력 기준 명목 증가율
2) 선진국에는 G7 및 한국, 홍콩, 기타 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30개국으로 구성.

○ (브라질의 기회) 생산 기지 구축 및 수익 다각화

- (생산 기지 구축 투자) 자원 보유량 및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은 브라질 생산 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의 주요 유인 요소
 - 막대한 자원 생산: BP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0년 세계 13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FAO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 중 하나
 - 시장 접근성: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을 보유한 북미 대륙과의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브라질이 생산 기지로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 (수익 다각화 모색) 무엇보다 브라질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 증가 및 거대소비시장 형성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
 - 중단기적인 정부 소비 확대: 정부 지출의 확대는 향후 5~10년 동안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서 수익 다각화의 기회를 제공
 - 장기적인 국민 소비 확대: 현재의 국민 소득 및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매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연구방법

- 현재까지의 브라질 경제가 보여준 특성과 향후의 성장 동력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 경제적 특징 점검: 2000년 이후 경제 성장의 주력 산업과 지역별 주요 생산품 등을 비롯한 경제적 특징을 점검
 - 미래 성장 동력 분석: 정부의 투자 방향 및 민간의 소득 증가, 계층 구조를 중심으로 향후 브라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요소를 분석
 - 한국 기업 진출: 기존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브라질 경제 성장에 따른 진출 기업 증가에 대비한 시사점을 모색

2. 브라질 경제 분석

(1) 브라질을 이끄는 산업

○ (경제 성장의 지속) 제조업의 회복과 소비재 수요의 확대

- (제조업의 회복) 2009년의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모습
 - 내구 소비재 및 중간재: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브라질 제조업은 내구 소비재 및 중간재(원자재의 1차 제조 포함)를 중심으로 성장
 -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 2011년 8월까지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상반기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

- (소비재 수요의 확대) 국내 생산 및 수입의 동시 증가는 내수의 확대를 증명
 - 소비재 수입 증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비중은 2011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17.4%로 5년 전인 2006년보다 4.3%p, 10년 전인 2001년보다 4.6%p 증가
 - 소비재 내수 확대의 반영: 소비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는 국내 소비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가능

< 브라질의 제품 성질별 생산 및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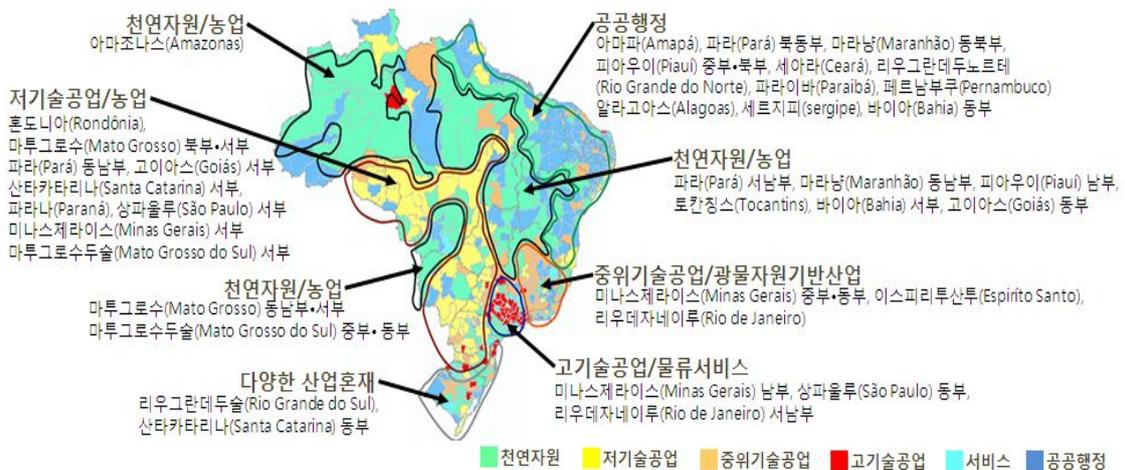


자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 (지역 간 편차의 발생) 물류 수요 확대 및 저개발 지역 투자를 유인

- (지역별 주도 산업의 편차) 브라질은 국토가 넓고 생산 시설 및 항만이 산재되어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각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의 차이가 큰 상황
 - 원자재 산업 중심 지역: 서부 및 중부 지역,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북서부 지역은 천연자원 및 농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
 - 공업 및 서비스 중심 지역: 반면 동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생산 시설이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공업이 발달
 - 물류 및 서비스 발달: 특히 동남부 지역의 경우 기존 항만이 존재함은 물론 최근 각종 상품 교역의 증대에 따라 물류를 비롯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 (지역 간 경제적 차이의 영향)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지역 간 자원 및 제품 운송량이 증가하는 한편, 북부의 경제 부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예상
 - 국내 물류 수요 증대: 지역 간 생산품의 차이는 국가 경제 성장 및 수출량 증대가 가속화될수록 내륙 물류 수요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의미
 - 북부 지역의 투자 수요 확대: 특히 중앙 및 지역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전망

< 2002년~2023년 브라질 지역 경제 견인 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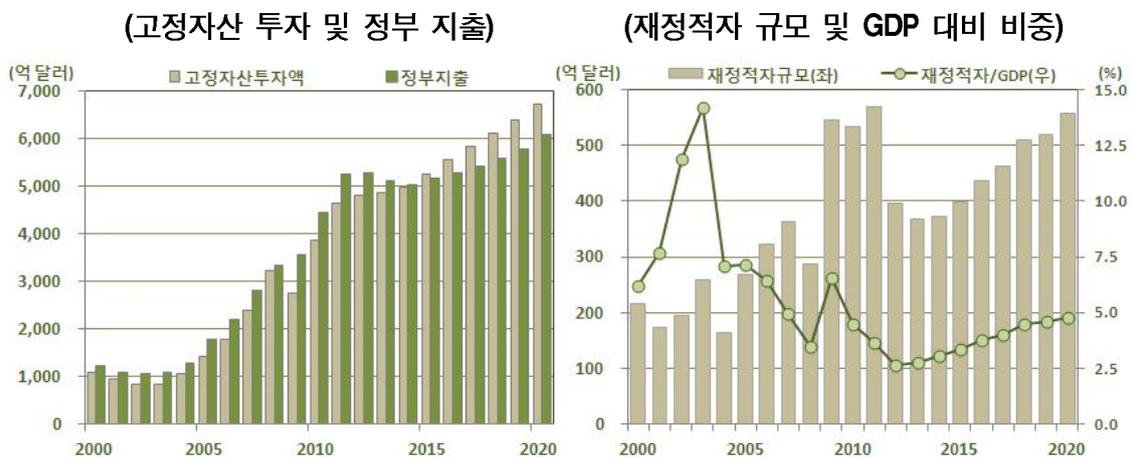
자료: Márcio Rogério Silveira.

(2) 브라질 성장의 양대 축: 인프라 투자와 민간 소비

○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진행

- (투자 정책 방향) 2011년 새로 취임한 호우세피 대통령 역시 전임 룰라 대통령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중
 - 고정자산 투자 증대: 2011년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4,638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연평균 4.2% 높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 정부 주도의 투자: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활발한 고정자산 투자로 2011년 정부소비지출은 5,257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01년의 4.8배에 달하는 수치
- (정부 지출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요 국가들의 긴축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재정 지출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증대가 전망
 - 지출 확대가 불가피 : 신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지속,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천명한 가운데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
 - 적자 기조의 지속: 브라질의 재정 적자 폭은 2013년까지는 크게 감소하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적자 기조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 지출의 안정적 확대: 결국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지출 규모의 점진적인 증대가 전망

< 브라질의 고정자산 투자 및 정부 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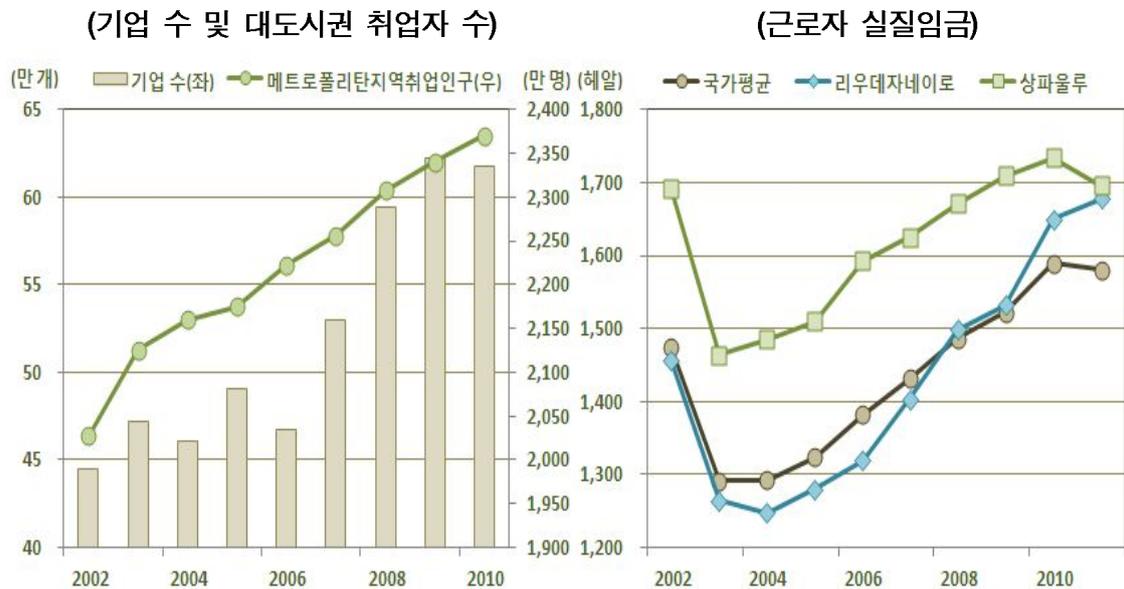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주: 고정자산투자 및 정부지출, 재정적자 규모는 명목 기준.

- (물류 인프라 투자) 특히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가운데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 부문은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
 - 항만 투자 증대: 리우(Rio de Janeiro)항¹⁾과 파라나(Paranaguá)항²⁾의 확장을 발표하는 등 자원을 비롯한 국제 화물 운송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 내륙 수송 인프라: 낙후된 내륙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2020년까지 철도를 비롯한 국가물류수송계획 및 다개년계획을 실시
 - 태평양~대서양 연결 사업: 남미 대륙 서부의 페루 항만(카야오항)과 동부의 브라질 간 도로, 철도, 내륙항 연결 사업이 발표되면서 남미 동부의 對아시아, 남미 서부의 對유럽 교역에 새로운 길이 조성될 전망

○ (민간 주도의 소비시장 형성) 소득 수준 향상 및 중산층 증가

< 브라질의 취업 인구 및 근로자 임금 >



자료: National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 주: 1) 기업 수는 정부에 등록된 기업 수
- 2)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브라질 정부가 규정한 14대 도시권(Região Metropolitana)을 의미
- 3) 실질임금은 각 연도 월별 실질임금의 평균 수치, 2011년은 7월까지의 평균.

1) 6억 1,10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통해 Post-Panamax급 수용이 가능하도록 터미널을 확장하고 화물 처리능력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

2) 향후 5~10년 간 16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연간 처리 능력을 4,500만 톤에서 7,000만 톤으로 증대시킬 예정.

- (소득 수준 향상) 사업체 및 취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동남권을 중심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추세
 - 취업 인구 증가: 사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권의 취업 인구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 임금 상승: 급속한 경제 발전을 보인 2000년대 중반부터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특히 리우 지역의 임금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승을 지속
- (중산층 확대) 최근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등 소득 계층 구조가 과거의 피라미드형에서 현재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하는 중
 - 빈부 격차 문제: 본래 브라질은 'Belinda'³⁾라 불리는 등 빈곤층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계층 구조가 특징
 - 소득계층 구조의 변화: 2009년 중위소득계층은 2003년 대비 2,700만 명 증가하고 하위 소득 계층은 2,200만 명 감소하는 등 소득 계층 구조가 변화
 - 중위 이상 소득계층 증가: 2014년에는 중위소득계층은 1억 1,300만 명(55.7%)에 달하고 상위소득계층이 국민의 15.3%로 확대되며, 특히 리우, 상파울루 등 동남부⁴⁾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시장의 확대가 기대

< 브라질의 소득 수준별 인구 변화 >



자료: Fundação Getulio Vargas.

주: 상위계층(A, B계층)은 월 가계 소득 6,941헤알 이상, 중위계층(C계층)은 1,610헤알 초과 6,941헤알 미만, 하위계층(D, E계층)은 1,610헤알 이하 계층으로 분류.

3) 브라질의 사회 구조를 작고 부유한 벨기에가 가난하고 거대한 인도에 둘러쌓여 있다는 의미에서 Belinda로 표현, Lance Taylor, Edmar L. Ba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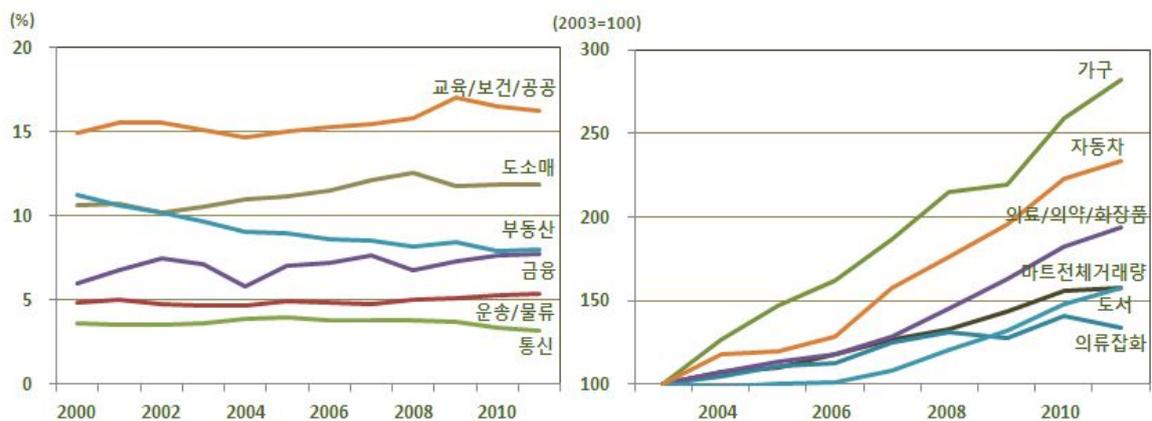
4) 브라질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동남부 지역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미нас 제라이스, 이스피리투상투, 산타카타리나가 포함되며 이 지역의 고소득층은 브라질 전체 고소득층의 61%를 차지.

- (서비스 상품 소비 확대) 금융, 도소매 등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소비재 거래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
 - 서비스업 비중 증대: 부동산 및 통신 부분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 산업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인 증대를 보이는 추세
 - 소비재 거래 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정 내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가구,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의류 등 비내구 소비재의 소비 확대가 기대

< 브라질의 서비스 산업 비중 및 소비재 상품 거래 >

(주요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비중)

(주요 상품의 거래량 지수)



자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3. 국내 기업 진출 현황

○ (對브라질 투자) 양국의 외교적 협력으로 투자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투자 확대) 對브라질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상반기 누적 기준 한국은 10대 브라질 투자국 중 하나
 - 투자 규모의 증대: 한국수출입은행 신고액 기준 2010년 對브라질 직접 투자액은 7억 8,071만 달러로 2001년과 비교하여 19.1배 증가
 - 투자 대상의 다양화: 과거에는 제조업 및 광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투자도 진행되는 추세

- **(외교 협력 강화)** 최근 한국·브라질 양국은 제2차 재무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협력 공조,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
 -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특히 양국의 기업 간 교류 지원,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
 - 공공재원의 투자 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과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간의 MOU 체결로 현지 진출 시 공적 기금을 통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

○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제조업에서 인프라, 서비스까지 진출 분야 확장**

- **(제조업 위주의 과거 진출)**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 제품 생산 기지 건설 목적의 진출이 대부분
 - 전기전자: 삼성전자 및 계열사, LG전자 등은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 주요 진출 목적이었으며, 이후 현지 판매량 역시 증가하는 중
 - 철강: 포스코 및 동국제강 등은 철광석을 비롯한 원재료 확보와 발레 등 세계적인 현지 철강 기업과의 제휴와 같은 이점에 따라 공장을 설립
 -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 및 관련 부품 업체의 진출로 브라질을 포함한 미주의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기지가 건설
- **(진출 분야의 다양화)** 최근에는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 인프라 등은 물론,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진출까지 가시화
 - 원자재 확보 및 유통: SK 등의 자원 확보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삼성물산, aI(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컨소시엄이 농산물 유통 시장에 진출
 - 인프라 관련: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장비, LS전선의 전력선 등 관련 제조업 진출에 이어 SK텔레콤(통신 시장), 한국전력기술(에너지)이 진출을 고려 중
 - 서비스 등 기타 사업: 이밖에 메디슨의 의료기기 시장이나 게임 업체들의 온라인 게임 시장과 같이 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시작

< 브라질 진출 주요 한국 기업 >

기업	생산 / 판매 품목 및 업종
CJ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L-Lysine 등 생산 및 판매
LG전자	휴대폰, TV, 모니터, 백색가전 등 생산, 판매
LS전선	전력선 등
SK	자원개발
SK 텔레콤	4세대 통신 시장 진출 검토 중
다슬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용 부품 프레스/사출 등
대우인터내셔널	농산물 유통시장 진출 준비 중
동국제강	슬라브 생산 및 현지 철강 기업과 합작 제철소 설립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용 장비 판매, 공장 건설 중
만도	자동차용 부품 생산 공장 건설 준비 중
메디슨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삼성SDI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DY), 핸드폰용 LCD모듈 등
삼성SDS	ITO, 시스템 SI, SOC 시스템 등
삼성전자	TV, HHP, 모니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홈시어터 등
삼성중공업	현지 조선소 합작 투자
삼성물산 · 한진 · at 등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판매
서울전자통신	오디용 파워트랜스, TV용 D-coil 등
온게임	온라인 게임
포스코	판재류 등 철강재 생산
한국전력기술	전력, 에너지 사업 진출 추진
한국타이어	타이어, 튜브, Flap, 휠 등 생산 및 판매
현대중공업	중장비 생산 및 판매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대하이스코	자동차용 강판 공장 설립 중
효성	타이어 코드 등 생산 및 판매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 시사점

○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 **(경제 협력에 따른 후속 지원)** 한국·브라질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가 진행 중인 만큼 현지 투자 및 진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중요
 - 브라질의 중요성 증대: 한국의 원자재 확보는 물론, 신(新) 시장 개척 등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
 - 지원 수요의 증가에 대응: 하지만 아직 남미 지역은 선진국 및 아시아에 비해 정보 등 각종 지원이 부족하여 신규 진출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것이 현실
- **(현지 교민과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현지 진출 시의 정보 수집 및 사업 수행 등에서 교민과의 협력 및 교류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의 확대가 요구
 - 한인의 위상: 1953년 이민이 시작되어 5만여 명의 교민이 활동 중으로 섬유, 의류 등 현지 소비재 및 유통 시장에서 한인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상황
 - 기업 및 교민 간 교류의 필요성: 특히 서비스업 등 지역 정보 및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업일수록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민의 도움이 필요

○ 신사업 기회 모색

- **(물류 등 인프라 사업)** 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의 수요가 증대됨과 동시에 정부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신사업 기회가 발생하는 중
 - 국제 및 내륙 물류: 해운 및 내륙 수운 항만의 민간 투자 유치 등 사업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육운 인프라 투자⁵⁾는 물류 산업 성장에 긍정적
 - 기타 인프라: 이밖에 정부 주도로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특히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전 시장은 시장 진출의 또 다른 기회

5) 아마존강의 최대 항구인 마나우스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철도 역시 발레 등 민간 기업 중심의 확장 사업을 진행 중.

- (원자재 및 기타 사업) 브라질의 원자재는 매력적인 신사업 투자 대상 중 하나이며,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 역시 사업 기회로서 고려 가능
- 원자재: 브라질은 광물 자원 외에도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며, 특히 정부는 아마존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
- 금융 및 서비스 등: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에 따라 금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 등 기타 서비스 산업들의 수요 확대 역시 기대

○ 현지 투자 환경 점검

- (투자 방법 및 리스크 파악) 현지 진출의 방법, 양국의 문화적 차이, 브라질 코스트6) 등 현지의 특성에 대한 인지가 요구
- 진출 형태: 브라질 내 지점 설립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
- 근로자의 문화적 차이: 현지인 고용 시에는 한국과 브라질 간 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우 및 근로 규정의 수립이 중요
- 성장에 대한 모니터링: 브라질 경제는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아직 안정성은 부족하여 각 산업 및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

HRI

김필수 선임연구원 (2072-6238, pskim@hri.co.kr)

6) 관료주의 및 부패, 높은 금리 등 브라질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 참고 문헌 >

- 현대경제연구원(2011), 브라질,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한국수출입은행(2011),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한국은행(2011), 국제경제정보 2011-29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룰라 정부의 유산과 호우세피 정부의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브라질의 인프라 개혁과 신흥국 발전의 애로: 철도 인프라를 중심으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국제물류위클리 104호, 111호, 112호, 120호
- 삼일회계법인(2011), BRICs Update 1호, 2호, 3호
- Roberto França da Silva Junior(2009), Circulação e logística territorial: a instância do espaço e a circulação corporativa
- Márcio Rogério Silveira(2009), LOGÍSTICA, SISTEMAS DE MOVIMENTO, FLUXOS ECONÔMICOS E INTERAÇÕES ESPACIAIS NO TERRITÓRIO PAULISTA: UMA ABORDAGEM PARA A GEOGRAFIA DOS TRANSPORTES E CIRCULAÇÃO
- Lisandra Pereira Lamoso(2009), O PAPEL DE PALMAS - TO NA REDE DE INTEGRAÇÃO REGIONAL
- IMF(2011), World Economic Outlook
-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http://www.ibge.gov.br>
-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http://www.mdic.gov.br>
- População Estimada para o Estado de São Paulo, <http://www.seade.gov.br>
-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1월18일	11월2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02	1.89	-0.13%p
	엔/달러	92.93	88.43	81.19	76.97	77.31	0.34¥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471	1.3342	-0.0129\$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796	11,258	-53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375	8,165	-2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36	3.38	0.02%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38.9	1,158.5	19.6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39.2	1,795.1	-44.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1월18일	11월2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7.55	96.78	-0.77\$
	Dubai	78.06	73.14	88.80	107.67	106.80	-0.87\$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12.21	306.73	-5.4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